

# 보도자료



보도분류	브리핑( )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2021. 6. 21(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과	투자유치기획과
담 당	과장 정경원, 투자협력팀장 이종현, 담당 이명숙(032-453-7313)

## “격의 없는 대화 이어진 글로벌 인재 발굴 산학연 토론회”

인천경제청, 입주기업·기관 채용·취업 담당 실무자 네트워크 행사 개최  
 기업들 “인력난·유출 등 어려움 호소”…IFEZ “기업 필요 인력 매칭 등 최선”

- 코로나19 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최한 채용 및 취업 담당 실무자들의 산·학·연 토론회에서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인재 발굴을 위한 산학연 토론회-IFEZ 혁신성장 플랫폼 실무자 네트워크’를 온·오프 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청이 지난 4월 IFEZ 입주기업들과의 양 방향 소통을 위해 개최한 ‘제1회 IFEZ 혁신성장 플랫폼’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실무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과 관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이 자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삼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디엠바이오 등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과 경신, 만도브로제, 블루콤, 포스크건설 등 IFEZ 입주 총 19개 기업 26명의 인사 분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또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해외 명문대학인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학의 취업 담당자,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행사에 참석한 기업 인사 분야 실무자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전기·전자 분야 국산화 연구인력 부족, 판교 등으로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유출, 영업·기술 등 일본어 전공 인력 및 현장 시공직 엔지니어 인력 부족, 대기업으로의 인력 유출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송도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담당자들은 바이오를 전공한 학생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며 인력난을 호소, 눈길을 끌었다.
- 이들은 인천글로벌캠퍼스 담당자들과 인재 채용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천테크노파크 등은 인재육성 및 채용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 플랫폼에 참석한 한 기업체 관계자는 “네트워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실무자들이 자주 만나 기업 간 정보공유, 애로사항 해소의 장”이 될 것이라 보며 이번 행사에 만족을 표시했다.
-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번 모임이 호프미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최되길 희망했다. 또 입주기업 간 정보 교류·공유·상생협력 등 지역 인재 발굴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채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인천경제청은 이번 행사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 패러다임이 ‘개발·외투 유치’에서 ‘혁신성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경제청은 채용 및 취업 담당자들의 자연스런 네트워크 형성을 꾀하고 인재채용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경우 개별 또는 소규모 모임도 주선키로 했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 등 유관기관과 매칭하고 지원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첫 번째 혁신성장 플랫폼 구성 이후 글로벌

인재발굴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차원에서 기업과 유관기관의  
원활한 실무자간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  
IFEZ의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